



알아두면 유익한 여행의 틈새 기술

여행은 떠나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설렌다. 해외로 떠날 때는 가까운 곳이라도 챙겨야 할 짐이 많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다. 떠나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정보를 찾아내고 이용하면 여행이 더욱 만족스러워진다. 항공권 예약부터 공항을 출발할 때까지 알아두면 편리할 뿐 아니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여행의 틈새 기술을 소개한다.

글 임동근 기자 · 사진 연합뉴스 DB센터, 아시아나항공

1 공항버스 놓치지 않고 타기

K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갈 때마다 고민이다. 공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 불안하다. 비행기 출발 시간에 빠듯하게 집을 나섰을 때는 흑 눈앞에서 놓칠까봐 전전긍긍이다. 첫차와 막차 시간, 배차 간격을 알고 있어도 버스 시간에 맞추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서울의 주요 구간을 운행하는 공항 리무진은 홈페이지(www.airportlimousine.co.kr)에서 GPS를 기반으로 한 '공항버스 실시간 위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버스 위치 안내' 메뉴에서 이용하려는 버스 번호를 입력하면 버스가 통과하는 모든 정류소가 개재된 노선도가 나타나고, 현재 버스의 위치가 표시된다.

이용 버스가 언제쯤 도착할지 알고 싶다면 '실시간 정류장 도착 정보'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정류소 번호나 이름을 입력하면 검색 결과에 진행 방향 선택 항목이 나타난다.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다시 '경유 노선' 창에 이용하려는 버스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버스 번호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 란에는 다음 버스와 두 번째 버스의 예상 도착 시간과 현재 버스의 정확한 위치가 문자로 표기된다. 정류장까지의 소요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공항버스에 오를 수 있다.



2 편안한 비행기 좌석 짚하기

장거리 비행에서 불편한 좌석은 정말 곤혹스럽다. 별 생각 없이 항공사 카운터에서 지정해 준 좌석에 앉다 보면 자리가 비좁거나 심지어 등받이가 뒤로 젖히지 않을 수 있고, 위치에 따라 무척 시끄러울 수도 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단체 여행객이 배치되는 맨 뒤쪽보다는 앞쪽 좌석이 좋으며, 승무원들이 식사를 비롯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공간인 주방(Galley)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 좋다. 또 비행기 엔진이 있는 날개 쪽은 시끄러우므로 피하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복도 쪽보다는 창가 좌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를 탔을 때 심하게 멀미를 하는 사람이라면 앞쪽의 가운데 좌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편안한 항공기 여행을 위해서는 좌석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항공기 좌석 정보를 제공하는 '시트구루(www.seatguru.com)'를 참고해 좌석을 선택하거나 항공사 직원에게 좋은 좌석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흔들리는 좌석은 뒤쪽과 날개 쪽이기 때문이다.

이코노미클래스에서도 각 구역의 가장 앞쪽 좌석이나 비상구 옆은 앞 좌석과의 간격이 넓어 상대적으로 편안한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공사와 기종에 따라 비상구 쪽 일부 좌석은 등받이가 뒤로 젖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비행기 뒤쪽에 좌석 개수가 줄어드는 열의 좌석은 앞 열 좌석들 사이에 다리가 위치해 불편할 수 있으며, 칸막이로 앞이 가로막힌 좌석은 식판(Tray)이나 개인용 비디오가 팔걸이에 들어가 있어, 좌석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자신이 타고 가는 항공기의 좌석 정보를 알고 싶다면 '시트구루(www.seatguru.com)'를 방문해볼 것을 권한다. 시트구루에서는 항공사 기종별로 좋은 좌석과 나쁜 좌석을 구분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좌석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인터넷으로 좌석을 선택하거나 공항에 조금 일찍 도착해 항공사 직원에게 좋은 좌석을 요구하도록 한다.

3 항공사 서비스, 안 챙기면 손해

동남아시아, 유럽 등 중장거리 구간이라면 기내에는 일반적으로 이어폰과 베개, 담요가 비치돼 있고, 음료와 식사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이외에도 항공사들은 고객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특특 튀는 다채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미리 예약하거나 승무원에게 별도로 문의해야 가능한 것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장거리 노선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차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시간 비행 후에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승객들에게 마스크팩을 나눠주고, 전문 교육을 받은 승무원이 네일케어와 메이크업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 교보문고가 제공하는 양질의 오디오북 콘텐츠를 개인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시스템(AVOD)이 장착된 모든 항공기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오디오북은 전문 성우나 저자가 책을 낭독한 것을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콘텐츠이다.

한편 공항에서는 겨울에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하는 탑승객을 위해 외투 보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클럽 회원 및 스타얼라이언스 회원, 퍼스트 및 비즈니스클래스 승객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1인당 1벌에 한하며, 7일간 무료다.

대한항공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어린이(Unaccompanied Minor)를 위해 '플라이엄(FlyingMom)'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선은 만 5~12세, 국제선은 만 5~11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항공사 직원이 탑승 수속부터 도착까지 복잡한 과정을 돕는다. 이 서비스는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 센터를 통해 예약을 받아야 한다.

만 7세 미만의 아이를 2명 이상 동반한 여성 승객,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의 승객, 당일 타 항공사 연결편 승객 중 해외여행이 처음인 경우를 위한 '한가족 서비스'도 인천공항을 비롯해 지정된 도착



항공사들은 다양한기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권을 예약할 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좀 더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지 및 경유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승객 및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유아 동반 승객에게는 '유모차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속 카운터에서 항공기 탑승구까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가족 서비스' 전용 카운터나 환승 카운터에서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다.

싱가포르항공 혼자 타는 아이를 승무원이 지켜볼 수 있는 복도 쪽 좌석에 앉도록 권유하고 착륙까지 돌봐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또 세계적인 어학 교육 기관인 벌리츠와 제휴해 선보인 '벌리츠 월드 트래블러(Berlitz World Traveler)'를 이용하면 기내에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 어린이가 중국어, 아랍어, 그리스어, 이탈리아 등 23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쌍방향 언어 학습 프로그램이다.

유나이티드항공, 타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유나이티드항공(만 5~17세)과 타이항공(만 5~12세), 캐세이퍼시픽항공(만 6~11세)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경우를 위한 '에스코트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담 직원이 출발지 공항에서의 항공기 탑승과 도착지에서의 보호자 인계를 돕는 것으로 유나이티드항공은 99달러, 타이항공(국내선 무료)은 국제선에 한해 구간당 30달러, 캐세이퍼시픽항공은 20~50달러에 이용할 수 있다.

타이항공은 또 몸무게 10kg, 키 67cm 미만 유아를 동반한 승객을 위해 아기 바구니 설치 가능한 좌석을 배정하는 '아기 바구니 서비스(Baby Bassinet)'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출발 72시간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저가항공사 저가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싼 대신 기내 서비스를 최소화한다. 잡지를 비치하지 않거나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서비스를 최소화했고, 일부는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는다. 그러나 고객을 잡기 위해 항공사마다 특색 있는 기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승무원 15명으로 구성된 기내 특화 서비스 팀인 'JJ(Join & Joy)' 팀을 구성해 풍선아트나 사투리 기내 방송, 캐릭터 의상 입고 사진 촬영 등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같은 특별한 날에는 탑승객의 사연을 방송하고, 선물도 제공한다. 한편 기내에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 DS 5대를 비치해 승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진에어는 휴대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인 PSP(Playstation Portable) 기내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용 모니터가 장착되지 않은 저가항공사 특성상, 비행 시간 동안 승객들이 게임으로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탑승편마다 PSP 10개가 탑재되며, 홈페이지(www.jinair.com)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후 대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료는 2천 원이다.

4 기내식 만족스럽게 즐기기

항공사들은 중장거리 노선에서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사 메뉴는 두 가지이다. 그러나 수량이 한정돼 있어 좌석을 잘못 선택하면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먹지 못할 수 있다.

기내에서 식사는 비행기 각 구역의 앞좌석부터 제공되므로 원하는 식사를, 그것도 남들보다 빨리 먹고 싶다면, 인터넷 예약 시 구역의 앞쪽 좌석을 선택하거나, 공항에 남들보다 먼저 도착해 항공사 직원에게 앞쪽 좌석을 요청할 것을 권한다.

또 종교나 체질 때문에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나 채식주의자, 영·유아를 위한 식단은 모든 항공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에 미리 항공사에 신청하면 일반 기내식과는 다른 별도 메뉴를 즐길 수 있다.

기내식도 추가 주문이 가능할까? 기내식은 일반적으로 전채, 메인(육류 또는 해산물) 요리, 디저트, 음료 등으로 구성된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내식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승객 인원에 맞춰 기내식을 싣기 때문에 원래는 기내식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식사를 하지 않은 승객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때도 있다. 식사를 마친 후 부족하다면 승무원에게 요청해보도록 한다.

항공사들은 장거리 노선에 간식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항공처럼 컵라면, 삼각 김밥, 피자스틱 등을 준비해두고 전체 승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항공사들은 요청하는 승객에게만 간식을 주거나



주방에 비치해두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도 한다. 에어프랑스의 경우, 컵라면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는데 직접 주방에서 가져다 먹도록 하고 있다.

5 공항 틈새 시설 이용하기

외국 항공기를 타는 여행객이 이용하는 탑승동 4층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한국문화박물관'이 있다. 421m² 규모의 공간에는 궁중의상, 고미술, 한글과 인쇄, 왕실행차도, 타종 등 한국의 역사 유물이 전시돼 있어 자녀와 함께 방문하면 좋다. 옆으로는 드러누울 수 있는 기다란 의자가 있어,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여객터미널 1층 중앙에 위치한 테마공연장인 '밀레니엄 홀'에서는 계절별로 국악, 라틴재즈, 아카펠라, 클래식, 팝페라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 및 성악가의 공연이 펼쳐진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히 비행을 타는 공간이 아니다. 여행자들의 편의와 휴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결혼식을 막 마친 신부들이 머리핀을 뽑고, 화장을 지울 수 있는 미용실은 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자리하고 있다. 화장을 지워주고 머리를 감겨주는 패키지는 3만 원이며, 2만 원을 추가하면 신랑 화장도 지워준다.

만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유아 휴게실'은 여객터미널 1층 B, E 입국장 옆과 3층 1, 4 출국장 옆, 탑승동 113·119번 게이트 옆 등 모두 6곳에 마련돼 있다. 유아 휴게실에는 유아 침대와 수유실이 마련돼 있다. 또 3세 이상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방'은 여객터미널 3층 9·14·41·45번 게이트, 4층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라운지, 탑승동 113·119번 게이트 등에 마련돼 있다.

공항의 식당에서는 한식, 중식, 일식, 패스트푸드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다. 항공사 승무원들과 공항 상주 직원이 주로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지하 1층의 '한국풍물장터'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싸게 맛볼 수 있다. 메뉴는 다양하지 않지만 회 비빔밥, 양푼 비빔밥, 라면 등이 판매된다.



6 무거운 수하물은 둘로 나눠라

위탁 수하물로 보낼 커다란 트렁크를 콕콕 채웠다면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은근히 걱정이 된다. 규정된 무게를 넘으면 가방 속의 짐을 빼내 기내로 가져갈 가방에 담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 캐나다, 중남미 등의 미주 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항공의 경우 대개 위탁 수하물의 무게는 일반석이 20kg, 비즈니스클래스는 30kg으로 제한된다. 물론 대부분의 항공사는 총 무게 25kg 정도까지는 허용해준다. 일반 여행자들의 짐은 대부분 20kg을



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허용된 무게를 넘는다면 초과된 중량만큼의 꽤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미주 노선의 경우 일반석 승객은 중량 23kg의 가방을 2개까지 무료로 실을 수 있다. 총 허용 중량은 46kg이 된다. 문제는 가방 1개가 23kg을 넘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위탁 수하물 용으로 사용할 여분의 가방도 없고, 기내로 가져갈 가방에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황해서 '올며 겨자 먹기'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항공사 체크인 담당 직원에게 상자를 요청하면 된다. 항공사에서는 작은 종이 상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방에서 초과된 만큼 물건을 덜어 상자에 담으면 된다. 즉, 23kg을 넘지 않는 수하물 2개가 되는 셈이다.

항공사에서 수하물의 무게와 크기에 규정을 두는 것은 사람이 직접 항공기에 수하물을 싣기 때문이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것이다.

7 돈을 절약하는 면세점 쇼핑 노하우

해외여행을 떠나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다. 면세점은 공항 면세점, 시내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기내 면세점 등 구입 장소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은 인터넷이 가장 싸며, 기내 면세점은 한 달에 한 번씩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진다. 인터넷 면세점이 가장 싼 이유는 면세점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 할인가에 신규 회원 쿠폰과 시기별 할인 쿠폰, 구매 금액별 할인 쿠폰 등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라 면세점 실버 회원이 '에스티로더'의 아이디얼리스트



무인 탑승 수속(Self Check-in), 자동 출입국 심사 등 인천공항과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게 탑승 수속을 끝낼 수 있다.

에센스(50ml)를 지난 8월 17일에 구입하면 인터넷 면세점에서는 회원 할인 5%에 상품 할인 쿠폰 2달러가 적용돼 정가 83달러의 제품을 77달러(9만5천256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 신라호텔 면세점과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는 5%가 할인된 79달러(9만7천730원)를 받고 있었다.

동일 제품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구입하면 가격은 79달러로 시내 면세점이나 공항 면세점과 같다. 그러나 서로 적용하는 환율이 달라 실제 결제 가격은 달라진다. 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8월 환율을 1달러에 1천500원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제품의 실제 구입 가격은 8만2천950원이 된다. 그러나 기내 적용 환율이 항상 더 싸지는 않기 때문에 미리 인터넷이나 전화로 알아본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8 탑승 수속 빨리 끝내기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할 때면 공항에서 탑승권을 받고, 짐을 부치고, 보안 검색 및 출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통 공항 카운터에서 줄을 서는 것부터 면세점 구역에 들어서기까지는 1시간 정도가 걸린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빠듯하거나 공항 면세점에서의 쇼핑을 기대하고 있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고역일 때가 있다.

물론 항공사들은 일정 등급 이상의 마일리지 회원을 위한 별도의 체크인 카운터를 마련해 두기도 한다. 이곳을 이용하면 사람이 별로 없어 일반 체크인 카운터보다 훨씬 빨리 수속을 끝마칠 수가 있다. 그러나 마일리지에 많이 쌓이지 않은 낮은 등급의 회원은 이용할 수 없다.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그렇다고 마냥 줄을 서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세계의 많은 공항에는 항공사들의 무인 탑승 수속(Self Check-in) 기기가 설치돼 있다. 아직 이용자가 많지 않아 카운터에서의 체크인보다 훨씬 빨리 수속을 마칠 수 있다.

기기 사용 방법은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예약 사항 및 신분 확인(여권 스캔 또는 번호 입력), 좌석 선택, 마일리지 번호 입력, 발권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기기의 화면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된다.

비행기에 실을 위탁 수하물도 무인 탑승 수속 전용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카운터 1개 정도를 무인 탑승 수속 전용 카운터로 개방하고 있어, 곧바로 수하물을 부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휴대전화로 탑승 수속을 하는 시스템도 출현했다. 휴대전화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예약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좌석을 선택할 수 있고, 좌석 확정 후 바코드를 휴대전화로 내려 받으면 무인 탑승 수속 기기를 통해 탑승권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하면 출입국 심사에서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 옆에 마련된 지하철 개찰구 모양의 판독기에 여권과 손가락 지문을 대면 곧바로 심사가 끝나는 무인 시스템이다.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 받은 만 17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 3층 F카운터 뒤쪽의 '자동 출입국 심사 등록 센터'에 찾아가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여권에 도장이 찍히지 않아 외국 출입이 잦은 사람은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의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다. R